

# 비판적 지성과 젠더, 그 재현의 문제

- 박순녀의 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서은주\*

## 차례

1. '여성성'과 지성의 공존은 가능한가
2. 교육받은 여성의 부정적 재현
3. '비판적 지성'의 소설적 재현 - 박순녀의 소설
  - 3.1. 자본, 속물성, 젠더
  - 3.2. 체제, 작가, 젠더
4. 맺으며

## <국문초록>

이 글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의 담론 장 혹은 문학 장에서 교육받은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지성의 결핍'이라는, 여성에 대한 매우 오래된 고정관념의 문제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이 시기 지식인·엘리트여성은 성장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틀 안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로의 강력한 동원체제와 자본주의적 속물성에 노출되었고, 다른 어떤 계층보다 쉽게 그것에 순응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교육의 수혜와 사회적·문화적 자극 등을 통해 계급적·젠더적 자의식이 형성·분화되어 저항적 지향성도 표출되었다. 당대 담론 장에서는 교육받은 여성의 반지성과 속물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제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재현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박순녀 소설은, 교육받은 여성 인물들을 통해 젠더·정치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체제·물질주의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시시비비(是是非非)’함으로써, ‘비판적 지성’을 인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다만 박순녀 소설이 지식인 여성과 하층계급 여성들과의 관계 맺기나 연대에 소극적이어서, 그에 대한 기억할만한 문학적 재현을 갖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분명 「어떤 파리」로 대표되는 그녀의 이 시기 소설은 ‘비판적 지성’의 한 사례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교육받은 여성, 비판적 지성, 젠더, 1960-70년대, 속물성, 박순녀, 「어떤 파리」

## 1. ‘여성성’과 지성의 공존은 가능한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1975년에 편한 <<한국아카데미총서>> 가운데 하나인 『여성문화의 도전』은, 196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간에 걸쳐 이 단체의 기관지인 『대화』에 실린 국내외 여성관련 주제의 글들을 묶은 것인 만큼 ‘여성운동’, ‘여성의 인간화’, ‘성해방’ 등의 키워드를 통해 당시의 여성주의 담론의 주요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텍스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해방운동을 비판한 A. 스타시노폴로스의 『여성다운 여성』을 우호적으로 리뷰한 글인 「스타시노폴로스의 탈 여권론」이 실려 있다.<sup>1)</sup> 『여성문화의 도전』이 『여성다운 여성』을 소개한 의도를 짐작해보면, 1970년대 급격하게 성장·확대된 여성운동에 대해 당대 사회가 보여준 경계의 시선과 거부반응을 이 글이 대신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여성다운 여성』은 여성해방운동이 남녀의 성욕을 구별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1) 『여성다운 여성』은 1973년에 영국에서 첫 출간된 이후 1974년 랜덤하우스에 의해 미국에서 재판되었다. 출간 당시 A. 스타시노폴로스는 25세의 여성이었다. 강옥구, 「스타시노폴로스의 탈 여권론」, 『여성문화의 도전』,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삼성출판사, 1975, 76-77쪽.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부양자로서의 남성노동의 고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함으로써 당시 서구사회에서도 보수 성향의 대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성 구별을 제거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하려는 급진적 여성해방운동에 맞서 여성의 독특한 역할 안에서 남성과의 동등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스타시노폴로스의 주장은, 차이로서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부각시키려는 여성주의의 한 표현으로 읽을 수 있어 무조건 반(反)여성주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해방운동도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현대 사회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이 책의 지적도 일면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sup>2)</sup> 이 시기 서구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쟁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었고, 따라서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인적 자원의 사회적 할당과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과,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결시켜 이해할 측면이 있다.

젠더와 지성의 문제로 초점을 모아보면, 『여성다운 여성』은 ‘여성성’에 대한 시각이나 문제해결의 지향은 다르지만 “여성은 지성과 공존할 수 없는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텍스트다. 스타시노폴로스는, 여성해방운동가들 스스로가 지성과 여성다움을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여성이 지니는 미덕을 경멸하고 파괴”하였다고 비판한다.<sup>3)</sup> 여기서 말하는 ‘여성다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해방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여성다움’과 ‘지성’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 아래에서 형성된 ‘여성다움’이란 순종과 정숙함, 혹은 모성성이나 돌봄의 성향을 신성시하는 태도를 지칭한다고 보면, 그러한 ‘여성다움’은 분명 여성해방주의자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었으리라 짐작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성 없음’으로 등치되는 방식은 비판의 소지가

2) 위의 글, 82-3쪽

3) 위의 글, 78쪽.

있다.

한편 『여성문화의 도전』에 게재된 「여성선언 칠장(七章)」이라는 글은, 여성의 지성과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글은 “개인차는 있어도 성차는 없다”는 시각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들도 차마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여성에 대한 속마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곱 가지 고정관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이든 부하든 남자끼리 구성되어야 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 둘째는 여성의 세계는 가정에 머물고 남성의 가정은 세계이므로 중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데에 여성의 두뇌는 도움이 안 된다는 편견, 셋째로 여성은 참을성이 없고 밤을 새우는 일이나 고뇌에 찬 일을 못 견딘다는 편견, 넷째는 사회의 정의실현이나 부정에 대한 의분은 남성만이 느끼거나 선도한다는 편견, 다섯째는 직장이나 사회단체가 여성에게 투자하면 손해 본다는 편견, 여섯째로 여성은 함께 인사를 논하거나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논할 대상이 못된다고 믿는 남성들의 편견, 일곱 번째는 여성에게 자부심을 길러주는 것은 세속적인 허영심을 키워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sup>4)</sup> 여기서 제시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주로 여성의 지적 능력과 조직사회에서의 적응 능력, 사회성과 관련된 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나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여성과 함께 논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감이나 의분이 여성에게 결여되었다는 통념이 현재까지도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교육받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케 한다.

박정희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여성을 발전과 성장의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동원 혹은 배제함으로써, 여성이라는 문제적 범주 역시도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이데올로기, 인종, 식민 경험 등의 주요 사회적 범주들과

4) 송정숙, 「여성선언 칠장(七章)」, 『여성문화의 도전』, 삼성출판사, 1975, 206-207쪽.

적극적으로 교차·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이다’라는 규정은 어떤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버틀러 식으로 말하면, 젠더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담론적으로 구성된 인종적, 계급적, 민족적, 성적, 지역적 양상들과 늘 만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젠더를 정치적, 문화적 접점에서 ‘순수하게’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접점에서 젠더가 생산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sup>5)</sup>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면서 구성되는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즉 젠더 정체성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젠더 구현의 구체적 재현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젠더의 본질”에 가깝다고 하겠다.<sup>6)</sup> 실제로 한국의 담론 장 혹은 문학 장은, 여성의 재현에서 은연중에 ‘지성’의 차원을 괄호쳐 버린 다든가, 유독 ‘지성 없음’을 강조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고, 따라서 여성의 젠더 정체성 안에서 지성의 항목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범주가 교차하는 문체적 접점의 재현을, 주로 남성 주체가 독점해 왔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깊다.

이 시기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공·호스테스·식모 등의 하층 여성들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는 젠더문제가 계급, 국가주의 및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식민 경험 등과 어떻게 맞물려 구성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그런데 ‘민중’ 계급에 대한 호명 이전에 남성지식인들의 지식인론이 사회적으로 크게 공명되고, 지식인 소설이 하나의 장르를 형성하던 당대 상황에서, 이에 동반하여 성장한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에 대한 담론적·문학적 재현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sup>8)</sup> 공적 영역으

5)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89쪽.

6) 위의 책, 『버틀러의 주요 개념들』, 1-9쪽 참조.

7)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 5-48쪽; 권경미, 「1970년대 버스 안내양의 재현 방식 연구」, 『인문연구』 64, 2013, 121-148쪽;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가』, 이매진, 2005.

로의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앞에서 제시한 「여성선언 칠장(七章)」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개발주의 시대의 남성들은 특히 여성을 조직의 동료나 대화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 배제의 근거에는 ‘신체적 연약함’과 더불어 무엇보다 여성의 지성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당대의 여성운동진영도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도한 ‘중간집단’ 운동은,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을 운동의 주축으로 상정하고, 이들 ‘중간집단’을 통해 남녀의 갈등과 양극화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sup>9)</sup> 그러나 이 ‘중간집단’ 운동은 억압적인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소비자운동의 방향으로 흘러 여성지식인의 주체화나 범주화로 자리매김 되지는 못했다. 요컨대 담론 장에서나 문학적 형상화에서 ‘지식인’은 남성이 독점한 영역이라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의 담론 장 혹은 문학 장에서 교육받은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리」의 작가 박순녀의 단편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지성’<sup>10)</sup>의 재현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박순녀는 한국문학사에서 상대

8) 김양선은 근대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여성 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의 문제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하였다. 전후를 거쳐 산업화시기에 이르면 여성작가들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이 속류화되고, 하위주체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최정희, 손장순, 박경리 등도 중산층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계급적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시기 구분 단위가 크고, 개괄적이어서 여성지식인의 ‘지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를 밝히는 데로 나가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김양선, 「근대 여성 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0-21쪽.

9)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74년 무렵부터 교육받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중간집단 육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강원룡은 중간집단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통해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 강원룡, 「사회발전과 중간집단의 역할」, 『대화』, 1974.6.

10)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근대적 제도교육의 수혜를 받은 존재들로서,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과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대중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표출하는 집단으로

적으로 저평가된 작가이지만, 교육받은 여성 인물들을 통해 다른 여성 작가들과는 차별화된 문제의식과 비판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틀 안에서 지식인·엘리트 여성은 국가 이데올로기로의 강력한 동원체제와 자본주의적 속물성에 노출되었고, 다른 어떤 계층보다 쉽게 그것에 순응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의 수혜와 사회적·문화적 자극 등을 통해 계급적·젠더적 자의식이 형성·분화되어 갔던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 젠더 범주가 교차하는 접점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지성이 어떤 양상으로 결부되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 2. 교육받은 여성의 부정적 재현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부정적 시각은 차치하고, 여성은 자신과 다른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히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에서 그 차이가 클 때 어떠할까?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의 ‘교양’은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이나 아량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

규정되어 왔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비판적 지성’의 주체도 이러한 지식인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식인론을 중요한 참조점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사이드는,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를 교차시키면서 표상하는 자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이는 공·사의 길항 속에서 양극단을 매개하며 모순의 지점에 서 있는 지식인, 그러한 지식인을 스스로 ‘재현’, ‘표상’하는 행위자로서의 지식인을 가리킨다. 그들은 또한 권력에 저항하는 초월적이고 순교자적인 지식인 이라기보다 ‘세속적 존재’에 가깝지만, 대담함과 소심함, “고독과 영합” 사이를 배회하면서도 그런 스스로를 ‘의식’하는 존재다. 1960-70년대 한국의 교육받은 여성들에게서 사이드의 지식인 개념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의문이지만, 당대 남성주도의 담론장에서 생산된 ‘민족 지성’, ‘민중적 지식인’ 개념보다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에드워드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역, 마티, 2012, 26-27쪽; 강수택,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삼인, 2001, 196-231쪽; 서은주, 「지식인 담론의 지형과 ‘비판적’ 지성의 거처」, 『민족문화사연구』 54,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503-533쪽.

약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은연중에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의 에피소드는 그러한 통념을 흔들어 놓으면서도 어떤 문체적 지점을 내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1965년 『세대』에 실린 「봄과 식모」라는 수필은 이대도서관장인 여성필자가 자기가 고용했던 ‘식모’에 대한 경험담을 솔직하고도 당당하게 적은 글이다.<sup>11)</sup> 이 글은 ‘식모 수난’, ‘식모족속들’, ‘외인(外人)’이란 표현을 쓰며 당시 식모들이 보여주는 불쾌한 행태가 “한 가정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가족전원의 기분마저 좌우”한다며 비난 섞인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 직장여성들에게 특히 식모들의 유세가 심해 그 비위맞추기가 어렵고, 봄이 되면 철새처럼 식모들도 이동한다면서 고용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성질은 고약하지만 일을 잘해서 3년 동안 고용했던 자기 집의 식모가, 여관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의 물건을 훔친 동생과 공모한 혐의(장물을 대신 숨겨줌)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신원보증을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권유에도 자신은 보증서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식모의 신원보증을 설 만큼 그녀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이 글의 여성엘리트는 그런 일로 경찰서를 가게 되어 매우 불쾌하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이 에피소드는 직장생활을 하는 엘리트여성이 자신이 고용한 하층의 여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태도가 아량이 부족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비난어린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그녀의 당당함이다. 이는 어쩌면 비슷한 입장의 중산층 혹은 상층의 지식인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자기에게 공감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리라. 물론 중산층 여성 역시도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일과 가사,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이중삼중의 사회적·가정적 억압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11) 이봉순, 「봄과 식모」, 『세대』, 1965.3, 353-355쪽.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성 내부의 반감과 거리화는 다른 위치에서는 다르게 재현된다.

박완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여성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상을 「여성의 적은 여성인가」라는 글에서 비판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2)</sup> 소설가로서 여성지식인이라 칭할 수 있는 박완서는 이 글에서 자신을 경제적 서민층에 위치시킨다. 글의 서두에서 박완서는 오일쇼크 이후 생필품가의 대폭 인상, 품귀현상이 생겼고,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그 이윤이 종업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휴지, 설탕, 치약도 제 때 사지 못하고 연탄도 품귀현상이라 연탄가게 주인에게 애걸복걸하다시피 부탁하고 나오던 길에 “주부들은 매점행위 삼가서 물가안정 이룩하자”는 여성단체의 홍보행위를 목격하게 된다. “사치풍조 일소해서 물가안정 이룩하자”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구호는 박완서에게 “위세”로 다가오고, 당대 물가고의 원인을 순전히 여성들의 사치행위와 매점매석에 두고 있는 듯한 그녀들의 인식에 맹렬한 분노를 느낀다.

그때의 그 분통터지는 내 소견머리로는 그 부인들이야말로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할 만큼은 부유해 보였고, 구공탄을 때더라도 적어도 식모에게 그 일을 시킬 만큼은 여유가 있어 보였고, 남편의 회사 차나官차로 나들이도 가고 계모임에도 나갈 만큼 뽀뽀스럽게 보였고, 지금 무엇을 살 필요가 없을 만큼 미리 충분히 사놓았음직하게 음흉하고 여유만만해 보였다. 나는 붉은 손톱이 오염하게 다듬어진 부인이 내민 전단을 받기를 냉랭하게 거부했다.<sup>13)</sup>

오일쇼크의 엄청난 여파를 여성의 책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여성 스스로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하며 박완서는 그런 문체의식을 갖

12) 박완서, 「여성의 적은 여성인가」, 『세대』, 1975.11, 200-203쪽.

13) 위의 글, 202쪽.

지 못하는 여성운동단체의 인식수준을 비판한다. 덧붙여 여성단체 참여 층이 유한층, 부유층이라 서민층 여성의 공통문제나 고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점 때문에 그녀들이 공감보다 적의에 찬 야유를 받게 된다고 분석한다. 또한 여성운동단체의 소비자보호운동을 언급하며 그것이 그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만 군소업자나 무허가업자의 불량식품 고발에 집중해 광범위하고도 교묘한 대기업의 사기행위, 폭리행위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대기업의 악덕과 정면 대결하기를 요청한다. 박완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여성활동가와 자신의 차이를 설정하고, 무엇보다 그 조건에서 파생하는 현실 인식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운동에 집중했던 여성운동단체의 제한적 시각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교육받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 위치나 소속, 즉 중산층 이상인가 아닌가, 그리고 전문직여성, 주부(소설가 겸직), 여성운동가 등의 정체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선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경쟁선발 중심의 제도교육을 경험한 첫 세대이자 중학교 입시를 통해 소위 ‘일류병’을 경험한 세대들이었다. 1970년대 여성의 대학 취학율이 평균 3.4%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여성 내부의 위계로 볼 때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그런데 그나마 고등교육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제도화되어갔던 반면 취업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남성 1인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전업주부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sup>15)</sup> 교육수준과 취업의 불균형이, 여성의 고등교육진입을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삼는 사회적 행태를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70-1979.

15) 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공부 경험과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논문, 2012, 114-150쪽.

만들어낸 것이다. 사회전반이 대학교육의 ‘과잉’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 시기 여성의 고등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았다.

이화여대 사대학장이었던 안인희는 「여성교육무용론-배운 여자와 배우지 못한 여자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sup>16)</sup>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통해 당대 여성교육의 현주소를 조감하고 있다. 앞의 「여성선언 칠장(七章)」이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여성의 입장에서 반박한 것이라면, 이 글은 남성의 시각에서 그 통념을 더욱 부각·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글은 서두에서 러시아 귀족주의자들이 계몽주의적 여성지도자들을 두고 “여자를 위한 교육이란 어리석은 여자들을 허무주의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조롱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세기 한국의 교육 받은 여자들은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맹송맹송한 얼굴로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격의 포문을 연다. 그에 따르면, “교육받다는 것은 자각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성하는 것이고 반성함으로써 거부해야 할 것을 마땅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안인희는 교육받은 여자와 교육받지 않은 여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나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받은 여성들의 지향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도덕의 위선성에 대한 저항, 둘째 경제적 자립, 셋째 감수성의 성장이다. 한국사회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은 강압적이고 위선적인데, 이는 여필종부라는 전통교육과 민주주의라는 현대 학교교육과의 이중적 교육관이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여성의 학교교육은 졸업장과 함께 종결되어 졸업장은 상품이 되어 복잡한 결혼시장에서 고급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한다. 안인희도 여권운동에 “신물이 난다”고 하면서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 위선적이며, “입으로는 여권을 부르짖고 실제 생활은 아주 탄판”이라고 비판한다. 남편을 출세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세태, 아들은 하루 빨리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딸은 부자집으로 시집보내려는 욕망을

16) 안인희, 「여성교육무용론-배운 여자와 배우지 못한 여자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세대』, 1975.3.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상품화하여 고가로 팔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여자의 운명으로 결정짓는 것이야말로 노예적 인생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맹폭한다. 적어도 교육받은 여성이라면 이러한 허위와 위선에 저항하고, 경제적 독립을 통해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과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글은 분명하게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할 때 주인과의 개인적 관계보다도 주인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반항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지점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저항하는 것도 개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성이 속해 있는 사회적·역사적 신분에 반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이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 감수성의 문제를 강조해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받은 여성들의 불감증, 무신경증을 거론하면서, 옷의 유행이나 현대화된 생활 도구에는 예민하면서, 대인관계나 인격적 접촉에서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사례를 제시한다. 감수성의 결여를 “동정해야 할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의 대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감각적 백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감수성의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나 경험에 매몰되기 쉬운 당대 여성의 취약한 사회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감수성이 고양된 사람은 추상적인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따라서 대량살인을 목인하는 전쟁에 대한 증오심, 악에 대항하는 정의감 등도 감수성의 성장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인회는 동료 여교수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교육받은 여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적인 욕망이 동기가 될 때에는 무척 다정하지만 추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치 냉정하다고 적고 있다.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을 주로 대상화 하고 있는 이 글은, 현상적으로 목격되는 여성들의 부정적 행태나 의식, 감수성의 측면을 재현하면서 그 부정성을 인지시킨다는 차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의 식이나 정의감 형성이 ‘얕’이라는 지식의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라는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한 것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시켜 볼 때 시사점이 크다. 문제는 교육받은 여성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덕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지나쳐서, 대개는 그것의 결여태로 존재하는 현실 속의 교육받은 여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재현한다는 데 있다. 사실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도 경제적 자립 부분을 제외하면 의식이나 욕망, 감수성의 측면에서 이 글에서 재현한 여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여성의 범주에서 그 재현이 부정적으로 극단화되는 것은 왜일까? 이기주의나 속물성을 교육받은 여성에게 덧씌울 때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양화된다는 것은 분명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이 처해있는 오래된 질곡의 경험세계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이해가 부족한 채로 표피적인 현상을 전면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통념의 재생산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재현은 ‘속물화’의 가치로 한국사회 전체가 내달리고 있는 사태를 ‘여성’이라는 젠더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의 한국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치권력으로 대표되는 ‘반지성적’ 세력과 대적할 진영이 그 힘을 현저히 상실해가는 국면을 대면하게 된다. 이 시기 ‘지성적’ 세력의 퇴각을 실감한 김병익도, 오죽했으면 “행동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도 “용감한 결단”이 되고 침묵도 “용기있는 실존적 선택”이라고 위로의 말을 던졌을까 싶다.<sup>17)</sup> 시대의 암흑함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깨어 있음”과 “비판의 자유”가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유일한 무기임을 되새기면서도 그것의 견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비상계엄’, ‘유신체제’로 요약되는 공포정치 시대를 떠올려보면 짐작 가능하리라.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자유를 내면화한 여성 지식인들의 경우 1960년대 민족의 근대화라는 지배 담론 속에 흡수되어 가정의 근대화를 담당할 주체인 현모양처로 재규정되는가 하면 외국 체험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분출된다. 1960-70년대 일간지의 ‘여성가정

17)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65쪽.

란'을 분석한 최이숙은, 이 시기에 '양성평등', '자아실현', '핵가족', '외모 지향', '가정관리자', '경제-소비주체', '근대화 주체'라는 프레임으로 젠더 정치가 작동했다고 요약한다.<sup>18)</sup>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열리는 시기를 전후해 '양성평등' 이슈가 부각되어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장 활발하게 제출된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 양성평등 프레임이 현격하게 퇴조하고, '경제-소비주체'가 강조되어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화 되는 양상을 띤다.<sup>19)</sup> 이는 유신시대를 경과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분단체제의 강화와 연동되어 여성문제의 이슈 생산에서도 대부분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여성의 인간화' 지향과 만나고, 그 '인간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사회적 규율과 금기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 가능했던 시기는 그만큼 좁혀질 수밖에 없다.

### 3. '비판적 지성'의 소설적 재현 - 박순녀의 소설

#### 3.1. 자본, 속물성, 젠더

1928년에 함흥에서 출생한 박순녀는, 1945년 원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월남하여 서울대 사범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1959년까지 동명여고 교사생활을 했던 박순녀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교육받은' 여성이다. 1960년에 소설 「케이스 워카」로 등단한 이후 『사상계』에 게재된 「아이 러브 유」(1962), 『사상계』 신인상을 받은 「외인촌 입구」(1964), 그리고 명실상부한 문제작 「어떤 파리」(1970)에 이르기까지 식민

18) 최이숙, 「1960-1970년대 한국 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정치」, 『한국언론학보』 59, 한국언론학회, 2015, 294쪽 참조.

19) 1970년대 후반 여성운동단체들이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운동방향을 집중하면서 '경제-소비주체' 프레임이 강조된다. 위의 글, 309쪽.

지 시대의 경험과 전쟁체험, 실향민으로서의 삶과 미군부대 ‘하우스걸’의 체험을 무게감 있게 재현하였고,<sup>20)</sup>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열망하는 지식인 여성을 재현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sup>21)</sup> 또한 월남지식인에게 특히 금기시되었던 반공주의 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주제의식이 확장되어 1970년을 전후한 시기 박순녀는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한 사람이었다.<sup>22)</sup> 초기 단편의 경우 대부분 작가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 시기 박순녀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거의 ‘교육받은 여성’들이다. 당대 다른 여성 작가들도 대개는 교육받은 여성이기는 하지만 ‘지식인 여성’의 재현에 집중한 사례가 드물다고 할 때, 박순녀 소설에는 상대적으로 ‘비판적 지성’을 운위할 만한 지식인 여성 인물이 눈에 띈다. 특히 교육받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자립이 가능한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박순녀의 교사로서의 직업 경험은 그녀 소설의 여성 인물들을 이채롭게 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하겠다.

1965년에 발표된 「임금의 귀」는 S여고 선생이자 소설가인 명화와 생물학자 지숙의 우정을 통해 비판적 여성지식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두 여성은 서로 다른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데, 지숙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은행가의 고명딸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든든한 반면, 명화는 조선총독부 관리였던 아버지가 해방 후 친일파로 끌려가자 혼자 월남해 서울에서 고학한 인물이다. 지숙은 사랑 없는 정략결혼에 저항하며 파리행을 택하고, 명화는 속물적이고 사회의식이 결여된 남편과 교장에게 저항한다. “안면이나 물질만 갖고 처세”하는 남편 원철은 혼돈과

20)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2010, 235-262쪽.

21)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24-431쪽.

22) 박순녀는 「어떤 파리」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문학과 지성』 창간호에 채 수록됨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 덕분에 1971년 일본 『아사히 아시아 리뷰』 여름호에 특집으로 구성된 「현대 아시아문학」에 이 작품이 수록된다. 『메마른 일본에 싹트는 한국문학』, 『동아일보』, 1971.7.5.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한국사회를 보면서 “미국으로 이스케이프”하자고 명화에게 제안하지만, 표리부동한 남편에게 환멸을 느낀 명화는 제안을 거절하고 이혼해버린다. 전후 한국인에게 미국이 하나의 도피처이자 유토피아로 표상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명화도 유혹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설명하기 힘든 어떤 책임감이 그녀를 한국에 남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전후 황폐한 서울에서 갈 곳 없는 전제민들의 판자촌을 강제 퇴거시키려는 S여고 교장의 이기심에 치를 떤다. 강제 퇴거령에 저항하는 판자촌 주민들을 향해 교장은 “육십 평생을 밤잠도 못 자면서 교육에 이바지해 왔지만 일제 때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 절대 없었지. 아 그래 민주주인가 미친주의지”라고 꾸짖는다. 돈과 결부된 강자의 논리로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교장도 문제지만, 그러한 망언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는 육십 명의 교직원 중에 자신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명화는 결국 학교를 그만 둔다. 학생들에게 해야 할 말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만 하는 사이 노이로제 증세가 깊어진 것도 사직의 이유다. 결국 명화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저버리고, 작가로서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불안한 삶을 선택한다.<sup>23)</sup> 사이드식의 ‘표상하는 자’로서의 지식인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남편 원철이나 교장 모두 개인적 이기심과 속물적 욕망에 매몰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최소한의 상식 혹은 균형감을 상실한 교육받은 남성들이다. 이에 비한다면, 명화는 아버지의 친일, 분단의 희생자, 경제적 가난 등의 개인적 조건에 결코 굴하지 않고 그것을 거리화하고 객관화하는 비판적 안목을 보여준다. 체험이 존재의 정체성 구성과 대개는 직결된다고 할 때, 이 소설에서의 지식인 여성 표상은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시대적(前時代的) 이야기」(1967)는 아내인 ‘나’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남편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 빠져 있던

23) 박순녀, 「임금의 귀」, 『어떤 파리』, 정음사, 1972, 52-53쪽.



‘나’가 서서히 남편의 객관적 실체를 알아가면서 그에 대한 감정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이별’을 통보하는 이야기다. ‘나’는 같이 월남한 약혼자와 본의 아니게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언제나 분명한 것만이 아름다워 보이는 습성”<sup>24)</sup>이 있는 나는 결혼해서 그 관계를 사람들에게 공인받지 못한 ‘동거’에 불안함을 느끼고, 별 생각이 없이 ‘동거’관계를 지속하는 약혼자에게 분노를 느낀다. 그러던 차에 대학선 후배로 만난 지금의 남편이 “열 번 짝어 넘어뜨릴 마음으로 덤비는” 바람에 그와 단숨에 결혼하게 된다. 물론 “애정의 절대성을 믿는 나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밝혔고, 그것으로 추호도 마음의 부담을 남기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하다. 기대와 달리 전 약혼자는 언더리가 나게 그녀를 따라다니며 집착을 보이고, 약혼자에게 돌아가라는 주변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 현재의 남편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

그때 나는 빠져리케 느꼈어요. 주위라는 것은 실로 악순환을 조장시키는 그야말로 반동 같은 존재라고요. 현재의 내 결혼이 잘못이었다 한들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강박은 무엇 때문에 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때 당신은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박은 않았을망정 역시 주위와 보조를 맞추고 내 곁에 서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한 바로 당신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것이 앞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빗어지는 갖가지 갈등의 모든 근원이 되었던 것이에요. 당신들은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소유하려고만 했어요. 아, 나는 굳이 당신들이라 해요. 그렇게도 내가 사랑했던 당신들은 촌놈 같은 소유권밖엔 모르는 자들이었어요.<sup>25)</sup>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이없게도 그녀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도 독신 행세를 한다. 그녀의 불안은 다시 반복된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집에 손님이 찾아온 날 남편은 아내를 부리나케 다락으로 밀어

24) 박순녀, 「전시대적 이야기」, 『칠법전서(七法全書)』, 일지사, 1976, 82쪽.

25) 위의 글, 83쪽.

넣어버린다. 그녀가 그런 수모를 참은 이유는 남편에게 “낭패를 시킬 수 없었던 것보다 내가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서운 노여움과 시커먼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에 알몸을 돌바닥에라도 짓쫓고 싶은 심정으로” 차가운 부엌마루 바닥에서 홀로 잠 자리를 청한다. 그 일이 있는 며칠 후 그녀는 아이를 인공유산 시켜버린다. 그녀의 극단적인 행동을 여성엘리트의 자기에 혹은 자기중심성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은 이 시기 소설에서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장관의 딸을 유혹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대 교수 자리를 얻은 남편은, 전쟁이 나자 병들어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버리고 혼자서 자기 누나가 있는 미국으로 가버린다. 그녀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굴욕적이지만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구걸하는 편지를 써서 그가 보내주는 적은 생활비로 겨우 버텨나간다. 환도 후, 그녀는 건강도 나아지고 밥벌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편지왕래도 뜸해진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남편이 아프다는 풍문을 들었고, 미국에서 잠시 나온 남편의 누나를 통해 “죽어가는 자신에게 편지 한 통이 없다구 펄펄 뛰”었다는 남편의 소식을 듣는다. 결국 이 소설은 남편과의 공식적인 이혼을 ‘최후통첩’하는 편지였던 것이다.

언제고 헤어져야 할 우리들의 사이, 그리고 그것은 필경 내가 서둘러야만 되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사이에서 내가 인간적인 부수(負數)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마음 편한 일입니까. 나는 그것을 내 인생에서의 우연치고는 최고의 우연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헤어져요! 헤어져요! 이별도 또한 즐겁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헤어져야만 되겠어요. 때에 따라 당신에겐 아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러한 아내 노릇이 나에게 바람직이나 해요?<sup>26)</sup>

26) 위의 글, 89-90쪽.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남편에게 보내는 그녀의 최후통첩은 그리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마지막 대목에 이르기 위해 소설 곳곳에서 ‘나’의 처절한 고독과 소외가 끈질기게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귀」와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여성주인공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모두 남성들이 보여주는 이기적 속물성 때문이다. 국가 단위든, 가족 단위든 타자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르는 책임감이 박순녀 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고 부에 대한 열망이 사회적 열병처럼 확산되는 시기의 속물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이웃돕기」(1969)는, 재판정을 배경으로 검사와 피고의 문답내용을 그대로 담은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다. 피고는 29살의 황민숙으로 “고교교사를 지낸 바 있는 미혼의 인텔리, 지금의 근무처인 H제약회사에 들어간 지는 3년 남짓 되는 서무직원”이다. 그녀는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횡령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는 “평소 밥을 굶는 가난한 사람 또는 남달리 딱한 사정의 사람”을 돕고자 하던 차에 “겨레돕기운동에 충격을 받아”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게 되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다. 그녀가 범행한 대상은, 주로 그녀를 통해 4부의 높은 이자를 얻고자 한 사람들로 월남해서 성공한 장사꾼, 군(軍)중령, 현직 차관 부인, 대학교수, 계주 등이다. 검사와의 문답과정에서 피고는 매우 순종적인 어조로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시인하는 듯하지만, 왜 그랬는가에 대한 동기를 밝히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들의 속물적 탐욕과 부도덕함을 폭로하고 고발한다. 피고가 월남한 장사꾼 김학진의 돈을 ‘편취’한 이유는 그가 가난한 월남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의 피해는 어쩌면 “당연히 당해야 할 횡액”이라 생각한다.<sup>27)</sup> “새파란” 젊은 군인인 신중령도 그녀가 보기에, 고리 이자를 받아 “군복바지를 칼날같이 세”우고 “어여쁜 아가씨

27) 박순녀, 「이웃돕기」, 『어떤 파리』, 정음사, 1972, 263-264쪽.

들을 꿰차고 희희낙락 활보”하며 애인에게 쇼핑보따리를 안기는 속물적 군인이다. 학창시절에는 낙도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현직 차관 부인 오경애가 ‘편취’ 당한 돈은 만딸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 대학교수 이길상은 그녀의 흰 옷을 “시커멓게 더럽”힐 정도로 성추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황민숙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그들로부터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사적으로 단죄했던 것이다.

피해의 또 다른 사례인 소설가 남궁민은 평소 피고 황민숙이 사사(師事)할 마음을 가지고 존경했던 작가였다. 그녀는 가난한 작가를 위해 번역 일감을 가져다주고 그 돈을 자신이 모아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설보다 번역 일에 몰두하게 된 소설가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확인하고 일감을 채근한다. “비상(飛上)을 바랐던 돈의 힘은 그 효과가 너무나 지나쳐 그것이 지닌 이면의 반동을 발휘”<sup>28)</sup>한 상황에 그녀는 크게 실망한다. 결기가 있었던 작가가 “돈 앞에 온화해지고 작품활동에서 힘이 빠지고 돈과 사람을 몰아세우던 날카로운 화술을 잃”는 것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피고 황민숙이 유용한 돈 오백 육십 만원 가운데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자기 생일에 친한 사람들에게 초를 사서 돌린 것이 전부였다. 박순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내막을 들춰 내면서, 금융자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증식되어 가는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부각시킨다. 물론 돈이 돈을 불러 모으는 ‘환상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그러한 ‘돈맛’에 빠진 인간들의 절제 없는 욕망도 공격의 대상이다. 부에 대한 그 치열한 욕망에 대한 박순녀의 경계와 거리화는 매우 철저하다. 다음의 칼럼은 이와 관련된 작가의 속내를 매우 솔직하게 보여준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발동해서 괴롭다. 강남의 토지붐이 일어나면 나도 한 몫 끼지 못해 안타깝다. 별장지대의 전집광고를 보면 입에서 침이 나올 것만 같다. 이러다가는 진정 나에게 돈이 생기면 도둑촌의 그 누구 못지않은

28) 위의 글, 267쪽.

파렴치한 집도 장만할 것만 같다. 그리하여 광대한 정원과 소비의 괴뢰인  
집속에서 하루 이십 사 시간을 집에 봉사하며 헤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sup>29)</sup>

강남의 부동산 투기 붐이 한국인의 속물성을 얼마나 증폭시켰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고급주택들이 모여 있던 서울 동빙고동의 속칭 ‘도둑촌사건’은 당시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안겼다. 기업가, 고위관료들이 모여 살던 고급주택에 수입대리석과 화려한 주방은 물론이고 에스컬레이터와 실내수영장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아방궁’, ‘도둑질해서 사는 마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헐값의 대지 매입과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졌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된다.<sup>30)</sup> 박순녀는 토지나 집에 대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따라서 자기도 예외가 아님을 인정한다. 문제는 그 욕망의 과도함이 법을 어기고,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는 상황으로 인간을 몰아간다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소설가 남궁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 욕망이 모든 여타의 가치들을 뒤로 밀쳐버릴 만큼 절대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성장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박순녀가 포기할 수 없었던 문제의식도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한다.

### 3.2. 체제, 작가, 젠더

1970년에 발표한 「어떤 파리」는 동백림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로 알

29) 박순녀, 「소박한 반성」, 『동아일보』, 1970.10.29.

30) 박정희대통령은 1969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외곽의 호화주택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하고, 호화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처분을 미루던 소유주들은 친척에게 명의를 옮겨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문패를 달지 않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목은 실정 채찍질 국회의 대정부 질의 결산(상)」, 『동아일보』, 1970.5.21; 「화려한 지탄의 궁전-서울 동빙고동을 본다」, 『동아일보』, 1970.5.23.

려져 있는데다 김수영을 짐작케 하는 홍재라는 인물의 등장<sup>31)</sup> 반공이데올로기가 지식인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문제적인 소설이다. 지연, 홍재, 진영은 “망국의 백성답게 흑한의 형벌을 받으며 만주벌판에서” 함께 자란 어린 시절을 공유한 친구들이다. 그러나 10년 동안 파리에 머물다 간첩단 사건으로 남편과 함께 잡혀온 진영을 위해 그녀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증언’을 할 것인가를 두고 홍재와 지연은 대립한다. 의용군으로 끌려가 포로수용소를 경험한 홍재는 지금 “세계수준의 겨루기를 좋아하는 독자를 가진 시인”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폭력과 이념적 이분법의 트라우마로 과잉된 이상행동을 보이는 인물이다. 홍재는, 진영과 그 남편을 “이 나라의 상류계급에 속해 파리로 갔다가 간첩사건에 묶이어 우리에게 돌아온 그들”로 지칭하고, 스스로를 “꼬박 이 나라 속에서 간혀 산 우리”에 포함시킨다. 홍재의 이러한 구분 속에는 한반도라는 공간에 ‘간혀’ 살아야만 했던 자들의 피해의식, 아니 더 정확하게는 피해에 대한 분노, 따라서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오랜 해외생활과 평양까지 내왕한 ‘특권’을 지녔던 진영부부의 사상을 자신이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지연 역시도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간첩사건에 연루되면 죽는 것으로 단정되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무지개 그룹”으로 성장기를 늘 함께 했던 진영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못한다. 과거 지연은 홍재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보호해준 경험이 있기에 진영을 위한 증언을 거부하는 홍재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5·16쿠데타가 발생하자 과거 전력으로 예비검속을 당할까 두려웠던 홍재는 지연의 남편 병원에서 얼마간 도피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연은 별 계산 없이 기꺼이 홍재를 품어 안았던 것이다. 이 소설은 지연의 시선에서 달라진 홍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을 거부

31) 이병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아시아여성연구』 47-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2008, 29쪽.

하는 홍재의 입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순녀가 이념이란 명분으로 과잉억압을 정당화했던 당시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홍재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증인’을 썼던 경험을 서술한 장면이다.

아주 최근, 그는 그대로 연관된 어떤 일로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되는 증인을 자처했다. 그를 염려하는 몇몇 친구가 그에게 초보적인 주의를 줬다. 그것은 저쪽을 똑똑 북괴라 일컫고 설혹 그쪽에 부모처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나와 같은 동포로 생각지 말라는 따위 충심으로부터의 충고였다. 사적인 장소에서는 실수로 돌러지는 일도 그런 경우에 가선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명심하기로 약속했다. 그의 마음 태세는 신이 존재한다면 신에 맹세하여 철두철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처하고 남았다.

드디어 어느 날, 그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일초의 시간의 차질도 없이 약속의 검은 차는 소리없이 와 멎었다. 그런데 그 차는 너무나 검어서 빛이 나고 기이한 착각을 가져와 그때부터 그의 사고력 전부를 빛과 검은 색 외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에 실려 소정의 장소까지 가는 동안 내내, 검은 색 그리고 빛에 몰두했고 증언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은 문어가 뿜어내는 먹물처럼 그를 포위했다. 머리를 들어도 숙여도 검은 색과 빛은 머리에 있었고 눈을 떠도 감아도 그것은 그의 안저(眼底)에 남아 돌았다.<sup>32)</sup>

“검은 색”, “먹물”로 묘사된 ‘증언’의 경험은 위압적 분위기, 죽음에의 공포와 결합해 홍재의 이성과 감성을 압도해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증언’을 고집하는 지연을 두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낭만적 인물’로 평가할 수도 있다.<sup>33)</sup> 그러나 지연은 진영이 ‘공산주의자’일 리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32) 『어떤 파리』, 앞의 책, 326-7쪽.

33)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고려대학교

갖고 있으며, 홍재의 신경과민과 ‘불온성’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아량이 있고, 그리고 파면된 자신들의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어린 아이들의 주장에 “반정부적인 배후”를 추궁하는 ‘심문관’들을 경멸할 줄 아는 용기가 있다. 지연이 맞닥뜨린 현실은, 반공주의 체제가 정해놓은 규율, 혹은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반체제’의 기준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잉 해석된 것임을 보여주는 소설적 장치라고 입을 수 있다. 박순녀가 창조해 낸 지연이라는 여성은 스스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주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수 있는 지성과 용기가 있는 인물이다. 1969년 9월에 3선 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후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의 포석을 마련하던 민감한 시기에 이 정도의 정치성을 띤 여성 인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어떤 파리」는 분명 ‘미판적 지성’의 사례로 인정할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박순녀를 반공주의가 몸에 밴 월남지식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그녀의 문학세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sup>34)</sup> 비슷한 시기에 쓴 「새와 반공법」이라는 칼럼<sup>35)</sup>은 이 문체와 관련한 그녀의 고민을 짐작하게 한다. 이 글에서 박순녀는 새 한 마리가 그려진 조그만 그림을 벽에 거는 데에도 반공법을 의식하며 ‘방향’을 고려했다고 적고 있다. 그림을 그려준 화가는 “삼팔선을 나는 새”라고 제목을 붙여 “새라도 되어 고향에 가고 싶”은 자신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정작 자신은 “새의 그림을 북을 향해 나는 위치로는 절대 걸어놓지 않”으며, 방의 구조가 어쩔 수 없으면 “하다못해 서쪽이나 동쪽으로라도 향하도록” 건다고 고백한다. 혹시 “그 새가 반공법에라도 걸릴까봐 마음을 써주는 것”이다. 자신의 글을 일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집자나, 새가 반공법에 걸릴까봐 염려하는 자신이나 모두 신경과민 상태라고 자조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국가가 아

한국학연구소, 2010, 254쪽.

34) 이명희는 박순녀가 월남인으로서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일종의 생존논리로 자기화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명희, 앞의 글 참조.

35) 박순녀, 「새와 반공법」, 『동아일보』, 1970.12.2.



무리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도 또 국민이 아무리 국가를 비판해도”  
 팬찮은 나라를 희망하며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작가도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녀의 자조적 고백에서 반공주의를 몸에 익힌  
 월남지식인의 비애를 엿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반공주의를  
 신념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몸에 익어버린 냉전시대의 ‘습관’을 스스로  
 경멸하고 성찰할 정도로 그녀가 열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  
 깝지 않을까 한다. 반공주의라는 규율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국민들  
 의 겪는 일상의 부자유와 심리적 공포를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특히  
 강도 높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순  
 종했던 다수의 월남민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증언을 두고 홍채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지연은  
 언론에 보도되는 진영부부에게서 “묘한” 감격을 느끼는데, 그 감정은 “남  
 편이 묶이어 와도 무사할 수 있는 아내가 아닌 것”, 즉 죽음이 예견되는  
 그 사태를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원한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그 인생을 걷는 일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모멸을  
 가지고 있다. 전란을 당해 그 화를 피할 때 남자 혼자만을 떠나보내는 부부  
 관계가 건드릴 수 없었다. 잠시의 피난으로 알았다고도 하고 도저히 행동을  
 같이 할 사정이 아니었다고도 말들을 했다. 아니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  
 인 편리위주의 남자와 여자관계가 나를 절망케 해왔다. 아내 앞에서 남편이  
 쓰러지고 남편 앞에서 아내가 죽어넘어지는 남녀결합의 투철함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 그래서 우리의 비극은 감동이 없고 오로지 비참할 뿐이다. 내가  
 묶이어온 진영에게 감격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해도 좋다. 나는  
 부부가 함께 묶이어온 진영에게 내 감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이  
 다.<sup>36)</sup>

36) 「어떤 파리」, 앞의 책, 297-8쪽.

월남민으로서 실향과 가족해체는 박순녀 소설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전제인데, 「전시대적(前時代的)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전쟁과 분단의 혼란 속에 결혼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남녀의 동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타산적인 관계로 전락한 남녀 등을 형상화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삶의 지향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진영 부부를 통해 박순녀가 재현하고자 했던 것은 가부장적 질서에 예측된 공동운명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지성적 판단과 감성적 유대 아래 정치적·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성은 관습과 제도로 계승된 것이지만, 그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근거에는 남성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해온 지성의 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편견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받은 여성과 남성 안에서도 남성우위의 위계화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영 부부의 동행을 “감격”의 대상으로 지켜보는 지연의 시선을, 단순히 사랑의 힘에 탄복하는 낭만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증언’을 하겠다는 지연이나 하기 어렵다는 홍재의 대화는 이 소설의 진정한 갈등이 되지 못한다. 진영과 홍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검은 빛”의 시공간을, 자유로운 ‘파리’의 “파란 색” 이미지와 강렬하게 대조시킴으로써 1970년 한국의 시공간을 비판적으로 사유토록 이끈다.

이 파리의 이야기, 우리의 환상 속의 파리의 하늘, 그 도피의 도시……파리와 너무도 동떨어진 곳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사는 곳을 의식하면 파리가 우리 생의 환희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파리의 이야기를 지껄이곤 한다. 세계의 오직 하나 미워하지 않을 도시로 남겨놓은 곳, 그 파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허망한 만족, 현실의 자기에 대한 잔인한 복수를 즐기는 습성이 있었다.<sup>37)</sup>

37) 위의 책, 293쪽.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여성주의 프레임이 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은 그 프레임의 허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박순녀가, 남편에 대한 진영의 절대적 사랑을 낭만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에서 재현한 지연의 형상은 1970년대 소설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운 비판적 의식을 내장하고 있다. 1960-70년대 한국문학 장에서 박순녀가 재현한 자기반영적인 여성지식인 형상은 동시기 다른 작가의 여성지식인 형상과 비교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기대해볼 만하다.

「어떤 파리」의 성공에 힘입어 바로 이듬해에 발표한 「생명 안치소에서」(1971)는 진영부부와는 정 반대의 남녀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도 불안한 동거가 등장하는데, 소설가와 ‘나’는 동거인으로 치장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공인된 부부는 아닌 것으로 읽힌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은 자못 심각하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특수한 벽 속에서 불평 없이 추악하게 살아가는 묘한 양들이었다. 우리는 그 벽을 깨뜨려 보려 움직여 본 일이 없었고 벽 밖의 이질적 움직임을 갈망해 열중해 본 일이 없었다. 너무나도 현명한 양들이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 속에 얼마나 강력한 전류가 감추어져 흐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전류는 때로 파리 같은 물질을 째, 하는 일순의 불꽃으로 소멸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그때 불꽃이 되어 소멸한 일순의 반짝임을, 우리는 잊은 지가 오랜 기대나 희망이라는 것으로 막연히 회상하곤 했다. 그리고 역시 그뿐이었다. 우리는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벽 속의 생활이 절대로 무사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sup>38)</sup>

“특수한 벽”에 갇혀 “불평 없이 추악하게” 살아가는 나와 소설가의

38) 박순녀, 「생명 안치소에서」, 『칠법전서(七法全書)』, 일지사, 1976, 286쪽.

“안전”한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탈영병 상규가 개입한다. 자신의 집에 하룻밤 묵어간 것이 전부이고, 나의 오빠가 경영하고 있는 M농장에서 잠시 만난 것이 전부이지만, 상규라는 인물은 그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인 ‘벽’들의 문제성을 강렬하게 환기시킨다. 상규는 결핵병원 보초로 복무하면서 슬한 죽음을 목격하고 상시적인 군대 폭력에 시달린 인물이다. 어느 날 신기루를 쫓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버린 젊은 청년의 사연을 듣고 상규는 심하게 동요한다. 심심풀이로 일상적 폭력을 행사하던 상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규는 카빈총으로 그를 후려치고 결국 탈영한다. 그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반체제 소설 구상”에 정진하고, 소설을 완성한 상규는 ‘나’에게 소설을 읽어달라고 보낸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가두는 ‘벽’을 탈출한 상규의 사연을 접한 ‘나’는, 새삼 상규와 대조되는 동거인 소설가의 지리멸렬함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 날 신문사 관계자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소설가는 “가정이 목까지 팍 차 있는 듯한” 신문사 관계자 부인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다 된통 곤욕을 치른다. 소설가는 그녀의 남편이 던진 술잔에 맞고, “이 새끼야. 우리 신문들이 너 같은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소설을 씌우고 있다, 굶어죽는 새끼들을 살리고 있는 거야”<sup>39)</sup>라는 모멸적인 폭언을 듣는다. 소설가의 부적절한 주사나, 그가 당한 모욕에 환멸을 느끼는 ‘나’는, “동양적인, 채식민족적인 어떤 유약성을 저주하는 한 청년의 어처구니없는 욕망”을 그린 상규의 소설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소설가는 상규의 소설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나’는 숨어 다니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문학에의 열정을 불태우는 상규를 열린 감수성으로 이해한다. 탈영은 엄연한 범법행위이자 반체제적 도전이다. 그럼에도 ‘나’ 혹은 박순녀가 탈영병 상규를 포용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사회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소설가의 무미건조한 연재소설보다 금기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

---

39) 「생명 안치소에서」, 위의 책, 297쪽.

는 상규의 소설을 우위에 놓는다. 소설가는 이제 “우둔할 정도로 고요함과 영구적인 미소를 잃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서서히 눈에 띄지 않는 벽에 의한 살인이 우리 주변에선 진행”되고 있음에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sup>40)</sup>

이 소설에는 공포정치를 실감케 하는 체제의 폭력성이 곳곳에 재현되어 있다. 군대폭력의 피해자로 체포와 탈옥을 반복하는 상규의 모습도 그렇고, 알콜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상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가 하면 순경 앞에서만 순한 양이 되는 오빠의 모습에서 강고한 체제의 힘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자신을 가두는 ‘벽’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나’와 소설가의 삶은 마치 시체안치소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안치소’라는 표현은 체제의 ‘벽’이 점점 압박해 들어오던 1970년대 초반의 현실을 반어적으로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군대폭력과 탈영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대담하게 형상화한 부분은 월남지식인으로서의 사상검열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음을 작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을 지속해나갈 동기와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탐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어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의 박순녀 소설은 이 질문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답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맺으며

1960-70년대 담론 장 혹은 문학 장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존재는 그리 낮설지 않지만, 지식인으로서 일관된 시각과 논리를 통해 자기세계를 구축한 경우는 흔치 않다. 무엇보다 여성 지식인의 의식과 삶이 온전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고, 여기에는 분명 여성으로서의 젠더

---

40) 위의 책, 301쪽.

적 제약이 작동한다. 사실 전후(戰後) 교육받은 엘리트 여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전해린도 독문학자이자 번역가로서의 전문성보다는 에세이를 통해 대중화된 낭만적 감상성이나 요절 스캔들이 전면에 부각된 바 있다. 자기세계의 개성을 강하게 펼쳐 보이고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비판적 지성’의 사례로 전해린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명 하나의 엘리트 여성의 ‘캐릭터’로서 전해린은 매력적인 표상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비판적 지성’을 견지한 여성 지식인의 실제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문학작품 속에서도 인상에 남는 지식인 여성의 표상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글은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재현의 양상과, ‘비판적 지성’의 재현 가능성을 박순녀의 소설을 통해 탐색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사실 그리 풍요롭지 못하다. 여성운동 단체나 공부모임을 통해 정치 현실과 젠더문제를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갔던 지식인 여성들의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보다 대중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여성지식인들이 자기세계를 재현해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것이다.<sup>41)</sup>

접근법을 달리해 보면,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녀들의 경제적 환경 즉 가난이며, 이차적으로는 가난에 기인한 낮은 교육 수준이다.<sup>42)</sup> 즉 경제적 조건과 교육 수준이 젠더를 관통하며 정체성의 차이를 구획한다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난과 무식이 평생의 상흔이었던 여성노동자들을 향한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970년대 실천적으로 전개되었던 산업선교나 야학활동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교육받은 계층’의

41) 박경리나 박완서의 경우는 이 시기에 분명 뚜렷한 ‘자기세계’를 구축한 여성작가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42) 김경일,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2005, 160쪽.

의미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식인 여성작가들이 하층계급 여성들과의 연대나 관계맺기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기억할만한 문학적 재현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박순녀 소설의 경우에도 하층 계급의 남성 인물과의 교감은 더러 등장하지만, 여성적 연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60-70년대 한국의 여성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호명 가능할 만큼 여전히 남성중심적·유교적 가부장제에 질식당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수혜를 통해 분화되고 차이를 갖게 됨으로써 어느 순간 본질주의적 환원을 거부하는 대상이 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젠더는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에서 목격된다.<sup>43)</sup> 즉 젠더의 이해에는 계급, 성적 지향, 연령, 능력, 인종, 종교의 차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차이의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차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다른 형태의 억압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련성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재현도, 다양한 정체성의 발굴과 그것의 상호교차를 통해 맥락화 작업이 축적된다면 보다 뚜렷하게 부조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자료

박순녀, 『어떤 파리』, 정음사, 1972.

박순녀, 『칠법전서(七法全書)』, 일지사, 1976.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여성문화의 도전』, 삼성출판사, 1975.

43)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02-103쪽.

『세대』

『대화』

『동아일보』

## 2. 단행본

강수택,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삼인, 2001, 196-231쪽.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65쪽.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5, 1-2장.

에드워드 사이드, 『지식인의 표상』, 최유준 역, 마티, 2012, 26-27쪽.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1-9쪽, 89쪽, 102-103쪽.

## 3. 논문

권경미, 「1970년대 버스 안내양의 재현 방식 연구」, 『인문연구』 64, 2013, 121-148쪽.

김경일,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2005, 152-182쪽.

김양선,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30쪽.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2010, 235-262쪽.

김은경,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21-255쪽.

서은주, 「지식인 담론의 지형과 ‘비판적’ 지성의 거쳐」,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503-533쪽.

유성희, 「한국 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1-373쪽.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아시아여성연구』 47-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8, 7-38쪽.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한국여성학회, 2007, 5-48쪽.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17-452쪽.

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삶과 교육: 공부 경험과 자기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논문, 2012, 1-231쪽.

최이숙, 「1960-1970년대 한국 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정치」, 『한국언론학보』 59, 한국언론학회, 2015, 287-323쪽.

## Abstract

### Representation Problem of Critical Intellect and Gender: Focusing on Park Sun-yeo's Novels in the 1960s-70s

Seo, Eun-Ju

This article explores how women who have been educated in the discourse or literary field of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are reproduced. Through this, I want to recall the problem of the outdated stereotype of women having ‘a lack of intellect.’ In fact, in this period, intellectual and elite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powerful mobilization of the state ideology of a growth-oriented modernization project and capitalist snobbism than were women of other social class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ir classical and gendered self-consciousness was formed and differentiated through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stimulation. As a result, resistibility was also found. In the discourse of contemporary history, articles pointing to the anti-intellect and snobbishness of educated women were submitted,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and reproduction of these stereotypes. Of course, there was no negative representation of educated women. In this era, the novels of Park Sun-yeo are impressively reproducing “critical intellect” by educating female characters through “telling right from wrong”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gender, political systems, and materialism. Of course, it is regrettable that her literature seems passive in 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or solidarity between intellectual

women and lower-class women, and it has not included a memorabl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is. Nevertheless, her novel, which is clearly represented as “A Paris,” should be remembered as an example of “critical intellect.”

Key words : educated women, critical intellect, gender, the 1960s - 70s, snobbishness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  
사를 거쳐 2017년 12월 2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